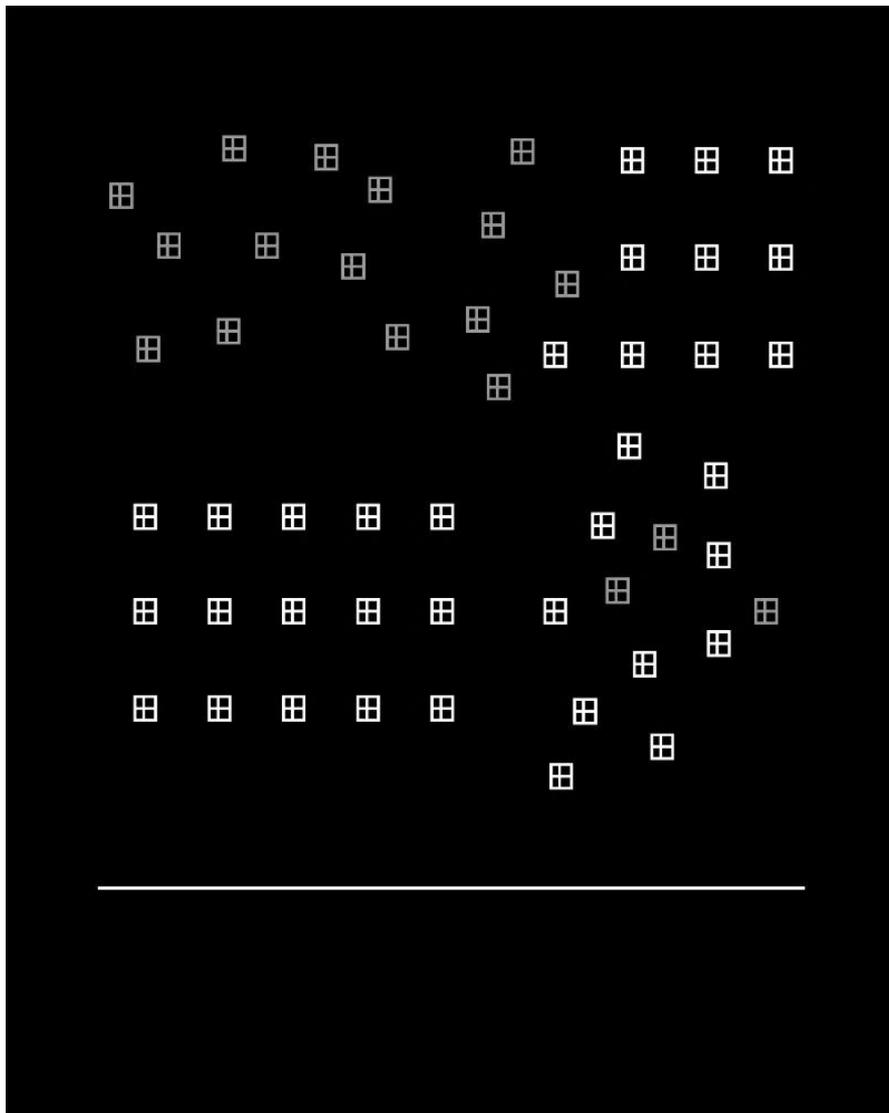


[전시 리뷰] 홍승혜 개인전 '회상回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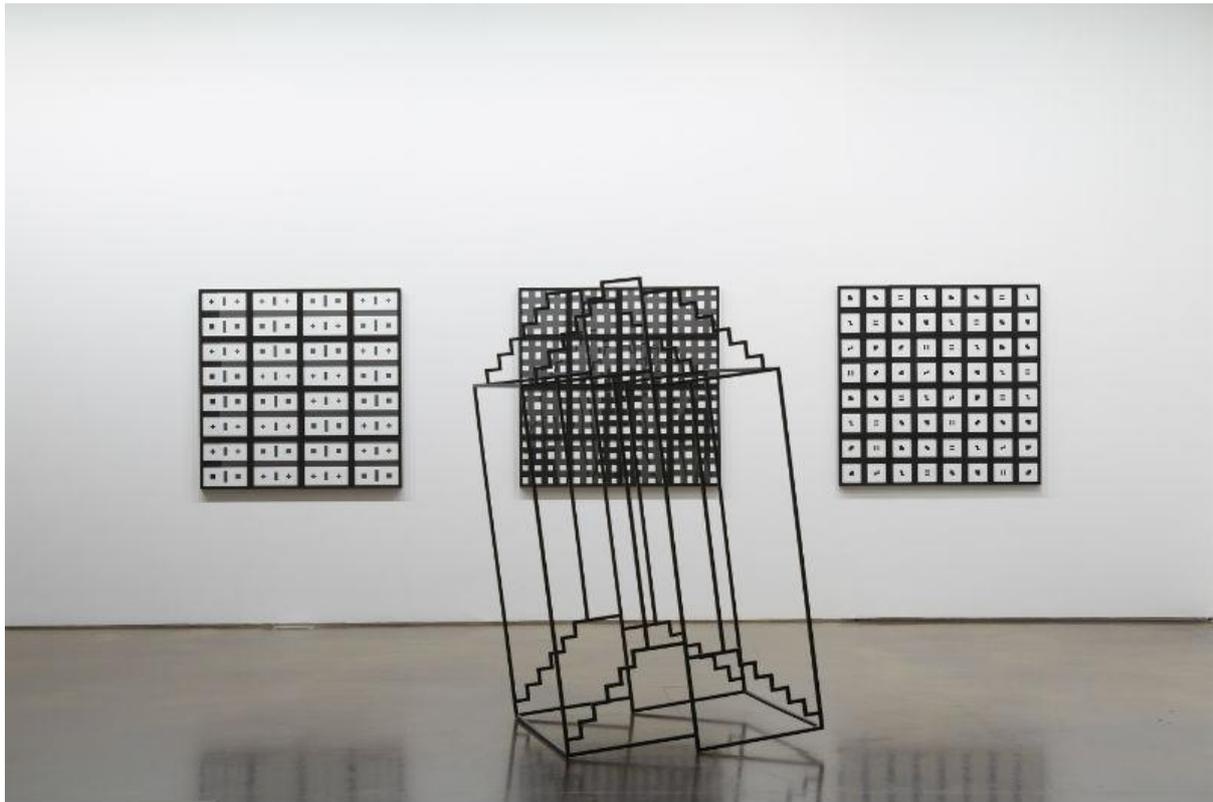
| 2014.07.10 - 2014.08.17 | 홍승혜 개인전 '회상回想', 국제갤러리
2관(k2)

2014-07-15



▲홍승혜, 유기적 기하학, 2014, inkjet print, 40 x40cm_bl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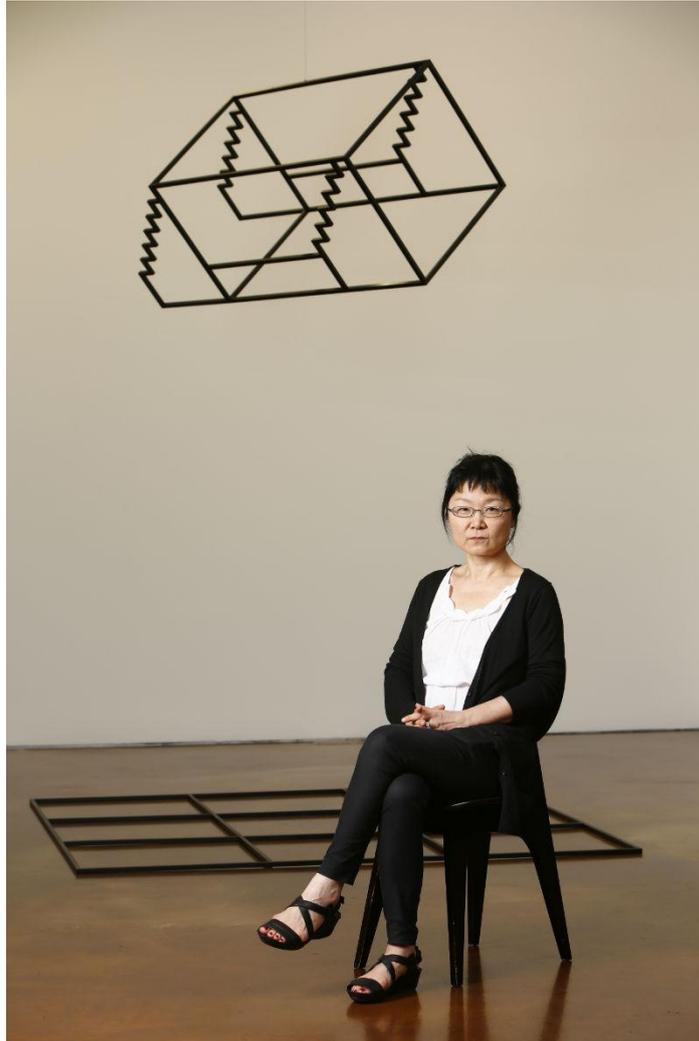
국제갤러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중년작가 홍승혜의 개인전 '회상회想'을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1997년부터 보여주고 있는 작업인 '유기적 기하학'을 통하여 작가의 작품을 회고하는 성격을 지닌다. 홍승혜 작가의 대표작들과 그녀가 주요하게 다루었던 접근방식을 근간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재편집한 작품들을 '회상회想'에 총망라 하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2000년도 서랍모양의 알루미늄 패널 작업은 실제 가구로 재현되었고, 2008년 작품 '파편'의 벽면 부조 및 텍스트 조각 'MORE INTERESTING THAN ART'는 분절과 결합 작업을 통해 새롭게 탄생되었다.



▲홍승혜 개인전 설치전경 사진제공: 국제갤러리

“돌이켜 보면, 나는 늘 돌이켜 보고 있었던 것 같다. 과거는 주어졌고 미래는 한없이 불확실하다. 결국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시간에 의해 변화하는 모든 것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 홍승혜

포토샵을 활용하여 작업 하는 홍승혜 작가는 프로그램 최소 단위인 픽셀을 점으로 나열하고 쌓고 다시 결합시키며 이미지를 구성한다. “모든 작품은 평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는 작가는 픽셀의 그리드를 고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분해하고 조합한다. 또한 안정적인 사각 그리드 안에 분절을 가미하면서 내재된 질서를 흐트리고 불협화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홍승혜 작가의 작업 이미지는 모니터에서 탄생하여 실제 공간으로 나오면서 다양한 조형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홍승혜 작가 사진제공: 국제갤러리

전시장 1 층에는 작가의 과거 대표작들이 크기와 재료를 달리하여 새롭게 전시되고 있다. 무채색으로 꾸며진 전시장은 마치 오래된 흑백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과거를 회상하게 한다. 전시장 2 층에서는 작가가 10 여년간 제작한 6 편의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흑백으로 한데 모은 '6 성 리체르카레'를 선보인다. 이곳에서는 바흐의 곡 '음악의 헌정'에 따라 픽셀이 사방으로 퍼지다가 한 곳으로 모이기도 하고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이 애니메이션들은 제각기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협화음 속에 자리한 작품 고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무채색의 회상공간을 도모하는 이번 전시는 한국의 대표적인 중견 작가로서의 홍승혜의 면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작가가 진행해 왔던 '유기적 기하학'의 진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